

## 헤리티지, 김승연 콘퍼런스센터 명명

한화그룹은 6월15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헤리티지 의회빌딩 2층의 콘퍼런스센터가 <김승연 콘퍼런스센터>로 명명된다고 발표했다.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재단 총재가 가진 오찬 회동에서 명명 결정이 이루어졌다.

한화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민간외교에 이바지한 김승연 회장의 공로가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싱크탱크로 정치·경제·외교·안보 분야를 망라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과 풀너 총재는 또 한-미 민간교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승연 회장은 6월3일 통가의 투이바카노 총리와 만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데 이어 풀너 총재와 오찬을 가지는 등 해외 유력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글로벌 경영과 민간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화학저널 2011/06/15>